

濟州 大靜鄉校의 建物別 造營 特性 考察

A Study on each Building's Constructional Characteristics of Daejeong-HyangGyo in Jeju

지 태 승* 박 정 근** 박 철 민***
Ji, Tae-Seung Park, Chung-Keun Park, Chul-Min

Abstract

HyangGyo had been built for teaching peoples as a place of educational practice, and also for the order and stability of country through Confucianism. This study analyzed and researched the building structure of Daejeong-HyangGyo in Jeju Island. In Daejeong-HyangGyo, uniqu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re shown as they have been built in an island independent from the mainland. Also up-down system was well reflected in detailed architectural styles. The main temple of Daejeong-HyangGyo was built in the type of one-Chulmok(a subsidiary material of Gongpo and a piece of wood to support the eaves) of which ancon supports a purline from the center of a pillar and two-Ikgong(a piece of wood engraved to put on an ancon), but in the case of the lecture hall, its Gongpo(a piece of wood to support the eaves) was inferior in quality. In the case of Jeju abutments were used in main temples and fire walls were mostly used. In particular, their abutments are difficult to be observed in HyangGyo in the mainland. It is presumed that the abutment and the fire wall used in Jeju Island might be the best solution to protect structures from rain and moisture. To sum up, local characteristics and traditional rules were thoroughly reflected in Dajeong-HyangGyos built in Jeju Island from the aspect of arrangement and detailed style. In conclusion, it is significant that architectural styles, not to mention the other aspects of Jeju culture, were suitably adapted to Jeju Island

키워드 : 향교, 제주도, 조영적 특성, 지역적 특성

Keywords : HyangGyo, Jeju Island, Constructional Characteristics, Local Characteristic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향교건축은 권위를 상징하는 궁궐건축 및 관아건축과는 다르다. 궁궐건축 등은 건물 그 자체가 권위를 강하게 상징하고 있으며, 사찰건축 등은 종교가 주는 신비감과 건축물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는 다르다. 향교건축은 절제된 단순미를 표현하고 있다. 즉, 조선시대에 충효를 중심으로 이륜을 내세워 군신과의 상하관계, 가족구성원간의 상하관계를 내세워 이를 교육하고 통치이념을 삼았다. 따라서 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중심기관인 향교에서도 충효사상에 따른 질서체계가 그대로 건축물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 사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 또한 향교건축의 특징이다.

향교건축 조영시 내재된 위계성은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축조된 향교건축의 각 전각들이 지니는 방향성이나 중심성 그 자체는 바로 '예'가 지니는 '경'의 의미로서 시·지각적, 행위적인 측면에서 축의 구성과 그에 따른 건물의 격이 주어진 위계적 공간구성을 이루게 된다. 즉, 유교의 질서개념이 조형상에 표상이 되어 의례공간으로

서의 성격이 강한 구성축을 중심으로 상하·전후·좌우의 위계적 질서개념이 내재된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다.¹⁾ 이처럼 향교건축은 축조과정에서 위계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으며, 각 건축물의 위계에 따라서 각 세부적인 조영적 요소에 대해서도 차등을 두어 건립하였고, 전각의 명칭 또한 차등을 두어서 명명하였다.

향교건축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많은 연구성과들이 나왔다. 특히, 향교건축은 입지여건 및 공간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문화재 지정에 따른 실측조사 및 보수공사로 인해 많은 양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향교건축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향교건축에 대한 연구방향을 개별 향교의 입지환경 분석, 단위건축의 성격과 특성 규명, 배치체계 및 외부공간 구성, 건축양식의 고찰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이들 중 건축물의 질서에 대한 연구로 주로 지형여건에 의한 배치체계, 공간구성에 의한 배치체계 등 주로 외부공간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유교적 사상에 의한 배치체계의 연구를 통한 배치의 질서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향교건축에 대한 연구는 공간과 배치가 가지는 질서체계를 규명하는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개별 향교의 조영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 정회원, 지태승건축사사무소 대표, 공학석사

** 정회원,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건축사

*** 정회원,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 E-mail : chul3705@cheju.ac.kr)

1) 조원섭, 향교건축의 구성형식에 내재된 위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23

제주도내에는 제주목의 제주향교, 대정현의 대정향교, 정의현의 정의향교가 건립되어 보존되고 있으나, 여러 차례의 이건과 중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창건 당시의 배치체계 고증과 더불어 각 건축물에 대한 구조체계 등의 실질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보여지며, 주로 포괄적인 연구로서만 진행이 되어왔다.

한국 전통건축의 기본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기단형식, 가구체계, 공포양식 등의 체계적인 자료정리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는 문화재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의 교육사적 가치를 올바르게 재정립하고, 제주지역 전통 건축물에 대한 역사적, 구조적 특수성을 바로 정립하여 보존, 연구 자료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향교 중 대정향교를 중심으로 전통건축의 기본구성요소인 기단 구성방법, 가구체계, 공포양식 등의 조영적 특징을 분석하여, 제주지역 향교건축이 갖는 세부적 특성을 찾아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주도에는 제주향교, 대정현의 대정향교, 정의현의 정의향교가 건립되어 보존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으며 1971년 8월에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된 대정향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정향교는 각 5칸의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신삼문, 대성문, 동말문, 동정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대성전과 명륜당, 동재서재, 내삼문 등을 연구범위로 하였다.

대성전은 1669년, 1688년, 1752년, 1835년에 중수하였고, 명륜당 1772년에 중건하는 등 긴 세월동안 여러 차례의 중·개축을 반복하였고, 가장 최근의 대성전 중수는 1993년 남제주군에 의해 이뤄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정향교내 건축물들의 가구구조는 현재 조영된 가구를 토대로 연구 진행하였으며, 이전의 구조에 관하여는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주로 제주 교육과 향교에 관련된 문헌조사와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重建時期 또는 移建時期와 관련한 사항은 대부분 문헌조사에 의존하여 수행되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대정향교의 기단구성, 가구체계, 공포양식 등을 관찰 및 실측을 실시하였다.

2. 대정향교의 현황

2.1 제주지역 향교의 현황

지방의 관학교육기관인 향교는 고려 인종5년(1127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유교가 국가의 건국이념이 된 조선시대에는 府, 牧, 郡, 縣 각 지방에 1개교씩 설치되었다. 여러 가지 실이 상존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에 처음 제주향교가 설치된 것은 태조3년(1394년) 3월 都評議使司

의 건의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역 향교의 경우, 여러 차례의 이건 과정을 거치면서 창건 당시의 세부적 구조체계 등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특히 제주지역의 향교에는 제향공간 내 건축되는 동무와 서무가 조영된 향교가 한 군데도 없다. 창건 당시의 정확한 기록의 부재로 동, 서무의 조영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조선 숙종 때 중건된 인천 부평향교와 정조 때 중건된 수원향교의 경우 대성전 앞에 동무와 서무가 건축되어 있어서 대정향교와는 다소 다른 배치형태를 보인다. 그 외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향교조영 규범에 입각하여 이건되었다.

표 1. 제주지역 향교의 현황 비교

구 분	제주향교	정의향교	대정향교
창건 년대	순조 27년(1827년)	현종 15년(1849년)	효종 4년(1653년)
창건 위치	제주시 용담동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안덕면
지형 조건	경사지	평지	경사지
배치 유형	좌묘우학	좌묘우학	전학후묘
건립자	이행교 목사	장인식 목사	이원진 목사
봉안위	5성, 공문10철, 송조6현, 한국18현	5성, 공문10철, 송조6현, 한국18현	5성, 종향22위
제향영역내 현존 건물	계성사, 대성전, 내삼문, 사주문	대성전, 내삼문, 사주문	대성전, 내삼문, 사주문
강학영역내 현존 건물	명륜당, 외삼문, 정자	명륜당, 동재, 서재, 수선당, 수호사, 외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협문
강학 유형	-	전재후당	전당후재

조선시대 제주향교의 경우, 봉안위 수가 성균관과 같고, 공자를 정위로 하여 4성과 공문 10철, 송조 6현을 대성전의 좌우에 배향하고 동, 서무에는 중국의 명현 47위와 우리나라의 명현 9위를 종사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제주 삼읍 향교 모두 공자를 정위로 4성을 배향하고 송조 4현과 신라, 고려, 조선조의 명현 18현을 문묘에 종사하고 있다.²⁾ 제주 三邑에 설립된 향교와 건물 현황은 <표 1>과 같다.

제주향교는 1394년에 설치되어 여러 차례 이설되다가 1827년 지금의 용담동으로 이설되었다. 정의향교는 1416년 정의현이 설치되면서 1420년 본읍인 고성리에 설치되었으나 1849년 현 위치로 이설되었고, 대정향교도 1416년 대정현이 설치되면서 1653년에 설치되었다. 학생 정원은 제주향교가 50명, 정의향교와 대정향교가 각각 30명이었으나 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배치유형에 있어서 대정향교는 제주향교의 현 배치체계와 정의향교의 좌묘우학의 배치체계와는 다른 전

2) 오송희, 조선후기 제주향교 운영실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10

학후묘의 배치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2.2 대정향교의 현황

대정향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12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도 기념물 제4호로 지정되어 있고, 그 부지는 1,181평(부속지는 8필지 4,145평)이다.

최초 대정향교는 태종 16년(1416) 대정현이 설치되면서 북쪽 성안에 건립되었다. 효종 4년(1653) 이원진 목사(牧使)에 의하여 지금의 단산 밑으로 이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뒤 대성전은 현종 10년(1669), 숙종 14년(1688), 영조 28년(1752), 헌종 1년(1835)에 중수하였고, 명륜당은 영조 48년(1772)에 중건하였다. 1993년에는 남제주군에서 대성전을 다시 중수하였다. '명륜당'이라는 액자는 순조 때 변영봉 현감이 주자필을 본받아 게시하였고, 대정현 訓長 강사공은 이 고장에 유배왔던 추사 김정희에게 요청하여 '의문당'이라는 액자를 받아 게시하였다.

현재 대정향교에 보관되어 있는 '의문당'이란 액자를 살펴보면, 『도광이십육년병오(현종 12년, 1846)십일월 일진주후인강사공 청적소전참판김공정희 제액근게 각자향원오재복 공자탄진이사칠구년 무진춘재계(道光二十六年丙午十一月日 晋州後人姜師孔 請謫所前參判金公正喜 題額謹揭 刻字鄉員吳在福 孔子誕辰二四七九年 戊辰春再揭)』라 하였으므로, 刻字는 향원 오재복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건물의 구성은 대성전, 명륜당과 동재 및 서재, 신삼문, 대성문, 동말문, 동정문 등이 있으며, 제주에 있는 삼문의 향교 중 그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 대성전에는 정위(공자)와 배향 4성위, 종향 22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³⁾ 대정향교는 1971년 8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으며, 1984년 4월 1일부터는 文明學院(사설 강습소)을 병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3 대정향교의 건물 구성과 배치

효종 4년(1653년) 이원진 牧使에 의해 단산의 끝자락인 현 자리에 이관된 대정향교는 대정읍성이 있던 보성리에 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전체적인 지형 조건은 완만한 5~6m의 고저차를 갖는 지형이며, 2단으로 정지된 부지위에 상단부에는 제향영역, 하단부에는 강학영역을 배치하였다.

제주의 3개 향교 중 전통배치기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대정향교는 앞쪽에 강학공간인 명륜당이 북향하여 자리잡고, 뒤쪽에 제향공간인 대성전이 남쪽을 향하여 자리잡아 대성전과 명륜당의 수직축을 정확히 일치시켜 배치하였다. 이와 같이 강학공간을 전면에 배치하고 문묘구역은 후면에 배치하는 前學後廟의 전형적인 향교배치 기

법을 대표하고 있으며, 전통적 조영규범에 따른 배치형식을 잘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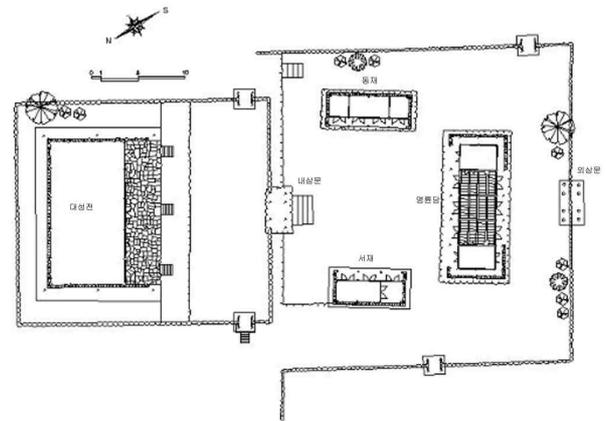


그림 1. 대정향교 배치도

(출처 : 『제주도, 제주의 문화재, 1998년, p.186』을 바탕으로 제작성한 것임)

성현의 위패를 모신 祭享공간은 유교의 位階性을 그대로 반영하여 가장 높은 곳에 배치하였으며, 내삼문을 따라 내려온 하단부에는 강학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는 철거된 外三門을 통해 강학공간으로 진입하면 전면에 명륜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양쪽으로 동재와 서재가 위치하여 있고 중앙에는 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동재와 서재 사이를 지나면 내삼문이 위치하여 있는데, 전면에는 여러 단의 계단을 설치하여 한 단 높은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삼문 중 가장 크게 구성된 중앙의 문은 神門, 즉 신만이 출입하는 문이며 좌·우측에는 일반인이 출입하는 작은 문으로 구성된다.

內三門을 들어서면 가장 높은 지형에 대성전을 중심축으로 한 제향(祭享)공간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오랜 고목이 식생하고 있어 대성전과 후면의 短山과 연결된 景觀軸을 형성하고 있다. 정방형으로 구성된 제향공간의 주위에는 자연적으로 조영된 석축담장이 둘러져 있고 좌·우측면에는 협문을 설치하였다. 이렇듯 전통적인 배치, 조영규범이 잘 반영된 대정향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다. 본래 명륜당 전면에 외삼문이 건립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철거되어 자연석 담장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3. 대정향교의 건물별 조영 특성

3.1 대성전

현종 원년(1835년)에 중건된 대성전은 전면 5칸에 전퇴가 있는 1고주 5량 규모로 소도시에 조영된 규모로는 비교적 큰 규모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쇠서의 초각 형태는 매우 섬세하고 화려하여 대도시의 이익공 수법과 유사하

3) 제주도, 제주의 문화재, 1998, p.189

다. 지붕은 팔작 기와지붕으로서 귀솟음과 안허리를 두어 한국적 선율을 그대로 표현하였고 합각부에는 풍판을 두어 석간주색으로 가칠단청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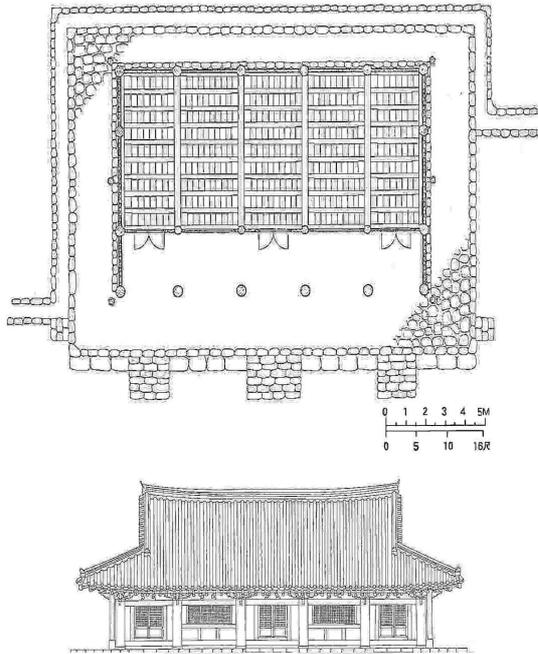


그림 2. 대성전 평면도(상) 및 정면도(하)
(출처 : 문화재관리국, 한국의 향교건축, 1998, p.524)

전면에는 개방형 퇴칸을 두었고 자연석 판석을 깔았다. 전면 기단은 자연석 바른층 쌓기 형식의 네벌대로 구성하였으며 우측면은 지형적인 조건으로 후면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좌측면은 지면과 비슷한 높이의 외벌대로 조성되었다. 후면은 외벌대 형식으로서 지면과 높이가 거의 같게 조성되었고 측구를 두었다.

계단은 전면에 3개소, 좌·우측면에 각 1개소씩 설치되었으며, 전면에는 각 7단의 계단을 설치하였고 좌·우측면은 각 4단의 계단으로 구성하였다. 초석은 평주와 갓기둥의 형태가 서로 다르게 구성되었는데, 평주에는 정평초석을 사용하였고 갓기둥에는 장주형 초석이 사용되었다.

기둥은 베흘림이 있는 圓柱를 사용하였고 양 측면과 우주 외곽에는 활주 형태의 갓기둥을 두어 출목도리를 받치고 있다. 장방형 형태의 장방은 연화형으로 뿔목을 구성하였으며 두공침차를 받치고 있다.

벽체와 창호의 구성은 좌·우측면과 후면은 1.3m 높이의 반화방벽을 설치하여 상부에 중방을 두었고 전면 어칸에는 상방과 하방을 기둥 사이에 연결하여 두 짝 여단이 만살청판문을 설치하였다. 좌·우 협칸에는 기둥사이에 상방과 중방, 하방을 연결하고 상방과 중방사이에 만살 비락단이창을 두었다. 또 중방과 하방사이는 회사벽 처리하였다. 퇴칸에는 두짝여단이 만살청판문을 두고 문설주와 기둥 사이에는 회사벽으로 처리하였다.

표 2. 대성전의 조영 현황

	옛 전경	현재 전경	
전경			
기단	전면 기단	갓기둥 초석	평주 초석
공포	전면 퇴칸	귀공포 상세	주상포 상세
가구	퇴칸 가구	내부 가구	우물마루 바닥

栱包의 구성은 1출목 이익공 형식이며, 4면이 동일한 형식의 공포양식이다. 일체된 형식의 초익공과 이익공 쇄서는 연화문리로 초새김하였으며 수서형 형태를 띠고 있다. 전면과 후면의 어칸, 협칸의 두공침차를 받치는 소로는 반쪽소로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4면의 창방 상부에는 화반을 설치하여 장여를 받치고 있으며, 화반상부에는 소로를 두었다.

주두와 소로의 형태는 굽이 없는 평주두와 평소로를 사용하였으며, 재주두는 사용되지 않았다. 架構의 구성은 1고주 5량으로써 전면에는 제향 시 편의를 고려한 개방형 퇴칸을 두었다. 퇴칸에 설치된 뒷보는 高柱에 장부맞춤으로 고정하여 하부에 보아지를 두고 있고, 이익공상부에 엮어 운공형태의 뿔목을 형성하고 있다. 모서리를 접은 장방형의 대들보는 고주와 평주를 연결하였는데 고주에는 장부맞춤으로 고정하여 하부에 보아지를 두었으며, 평주 상부에서는 도리와 화통가지맞춤으로 고정되었다.

또한 대들보 상부에는 동자주를 세우고 종보와 중도리, 장여, 뜯장여를 받치고 있으며, 종보 위에는 파련대공을 놓아 중도리와 장여, 뜯장여를 받치고 있다. 또 대들보와 종보의 하부에는 보아지를 설치하였다.

내부의 바닥은 우물마루로 구성하였으며, 천정은 보와 서까래 등이 노출된 연등천정으로 처리하였다. 지붕은 합각지붕으로써 측면의 합각 박공에는 풍판을 대어 석간주색의 단청을 하였다. 부연을 둔 겹처마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앙곡과 안허리를 두었다. 서까래의 마구리는 사절하였으며 부연은 마구리를 바싹질하여 초매기 상부에 엮었다.

기와는 한식 중기와를 사용하였고 막새기와가 쓰였다.

내부는 연등천정으로 구성하였다. 丹青은 전체 모로단청이 사용되었으며, 도리와 장여에는 연화머리초로 장식되었고, 창방에는 창방머리초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기둥과 중방, 하방 등에는 석간주색으로 가칠단청되었다.

3.2 명륜당

명륜당은 영조 48년(1772년)에 중건된 건물로서 전면 5칸 전후 좌우퇴로 이루어진 평면의 굴도리집이며, 장식이 간결하고 단청을 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강건한 느낌을 준다.

명륜당은 전면과 후면에 개방형 퇴칸을 두었으며, 좌측과 우측면에도 온돌 아궁이가 설치된 퇴칸을 두고 있다. 우진각지붕의 형태를 갖는 민도리 형식 건축물이다. 측면 전체와 후면 퇴칸은 화방벽으로 쌓아 올렸으며 전면 어칸과 협칸에는 두 짝 세살문을 두고 그 외 부분에는 회사벽으로 처리하였고, 퇴칸에는 두 짝 세살청판문을 설치하였다. 후면 어칸과 협칸에는 두 짝 여닫이판문을 두고 회사벽으로 마감하였으며, 우측 퇴칸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았다.

기단은 외별대의 막돌을 바르게 쌓은 형식이며, 기단 전면의 개방형 퇴칸 바닥에는 현무암 박석을 깔았고 후면의 개방형 퇴칸 바닥은 강회다짐으로 마감하였다. 초석의 형태는 전체 덩벙주초를 사용하여 상당히 낮게 조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주의 초석은 그 높이가 매우 낮아 기단석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 그랭이질 흔적이 일부 보인다. 하지만 평주초석의 경우는 덩벙주초로 조영되기는 하였으나, 가장자리 부분을 둥글게 일부 다듬어 사용하였다.

기둥은 흘림이 없는 원통형 기둥을 사용하였고 창방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도리와 장여, 보머리가 기둥과 결구되었다. 장여 하부에는 보아지를 설치하여 기둥과 결구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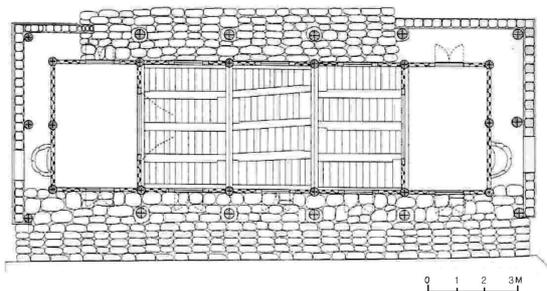


그림 3. 명륜당 평면도

(출처 : 문화재관리국, 한국의 향교건축, 1998, p.590)

架構는 2고주 7량가로 장방형 단면의 대들보를 전, 후면 고주에 걸고 동자주를 놓아 중보를 받치고 있다. 중보 상부에는 키대공을 설치하여 중도리와 장여, 단장여를 받

치도록 구성하였다. 도리는 모두 7량으로 굴도리이며, 4면 모두 홀치마로 구성하였다. 서까래는 마구리를 직절하고 기와는 한식 증기와를 사용하였으며, 막새 없이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표 3. 명륜당의 조영 현황

	정면		전면 퇴칸
전경			
기단 및 공포			
가구			

내부 바닥의 경우 양측 퇴칸의 좌실과 우실은 온돌로 처리하였고, 어칸과 협칸의 대청은 우물마루로 구성하였다. 천정은 퇴칸의 좌실, 우실은 우물천정, 어칸과 협칸의 대청에는 연등천정으로 구성하였다. 丹青은 석간주색 가칠단청으로 마무리 하였다.

3.3 동재(의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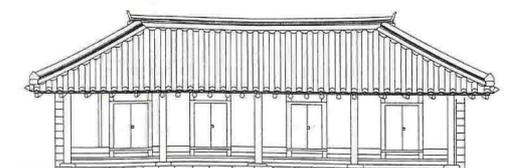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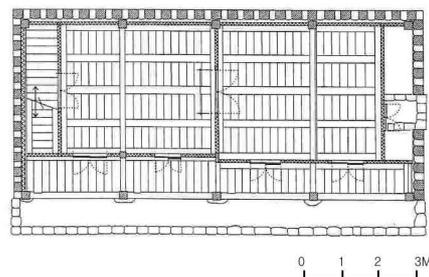


그림 4. 동재 평면 및 입면도

(출처 : 문화재관리국, 한국의 향교건축, 1998, p.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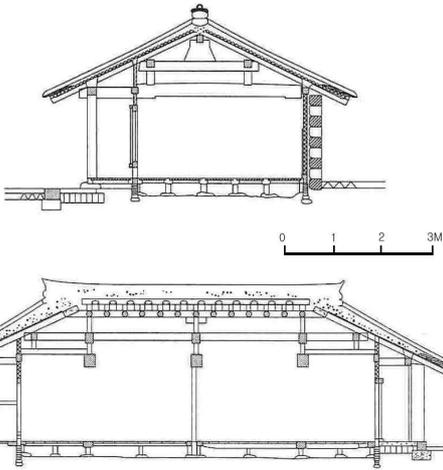


그림 5. 동재 중 · 횡단면도
(출처 : 문화재관리국, 한국의 향교건축, 1998, p.669)

전면 4칸 측면 2칸(퇴칸 포함) 규모의 東齋는 우진각 지붕의 민도리 형식으로 조영되었다. 전면에는 우물마루를 설치한 퇴칸을 두고 있으며, 측면과 후면에는 火防壁을 도리 하부까지 쌓아 올렸다. 전면의 각 주칸마다 두 짝 청판문을 달았으며, 출입문 하부에는 머름청판을 두고 있다. 또한 출입문 외의 부분은 회사벽으로 마감하였다. 기단은 외별대이며, 상면은 시멘트몰탈로 마감되었다.

표 4. 동재(의문당)의 조영 현황

	전경	현관
전경		
기단	평주 초석	기단 및 전퇴
가구	내부 가구	전퇴 가구

초석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 덩벙주초가 사용되었고 상부를 그랭이질로 마감하였다. 기둥은 흘림이 없는 方柱가 사용되었으며, 架構는 1고주 5량가로 납도리를 사용하였고, 퇴칸에는 장방형의 뒷보를 걸었다. 방형의 대들보는 고주와 평주에 연결되었으며, 상부에 동자주를 세워 중보를 받치고 있다. 중보 상부에는 키대공을 설치하여

중도리를 떠받고 있다.

공포는 민도리 형식이며 보머리는 직절하여 뿔기둥에 사괘맞춤으로 고정하였다. 바닥마감은 좌우 퇴칸의 경우 온돌을 설치하여 장판지로 마감하였으며, 좌우 협칸은 우물마루를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그 위에 장판지를 깔아서 사용하고 있다.

천정은 전체 연등천정으로 처리하였고 서까래 사이는 회벽으로 처리하였다. 우진각 지붕의 처마는 4면 모두 훌 처마로 처리되었고, 기와는 환식 중기와를 사용하였고 마구리를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丹青은 전체 석간주색 가칠 단청으로 마무리 하였다.

3.4 서재

동재와 유사한 구조로 건축된 西齋는 전면 3칸 측면 2칸(퇴칸 포함) 규모의 민도리 양식으로써, 동재 보다는 조금 적은 규모로 조영되었다. 전면에는 개방형 퇴칸을 두었고 그 바닥은 화강암 판석을 깔았다. 측면과 후면은 도리 하부까지 火防壁을 쌓아 올렸다. 전면의 각 주칸에는 상방과 하방을 걸고 두 짝 청판문을 달았으며 그 외 부분은 회사벽으로 마감하였다. 출입문 하부는 고막이 구조로 구성하였다.

표 5. 서재의 조영 현황

	정면	후면
전경		
가구	전퇴가구	내부가구
기단 및 공포	평주초석	민도리 상세

기단은 외별대로 자연석 바른층 쌓기하여 조성하였으며, 상면은 자연석을 방형, 장방형으로 다듬어 깔았다. 초석은 외진주의 경우 방형의 정평초석을 사용하였고, 내진주의 초석은 덩벙주초를 사용하여 상면을 그랭이질 하였다.

기둥은 흘림이 없는 方柱가 전체 사용되었고, 架構는 1고주 5량가로 납도리를 사용하였다. 대들보는 평주와 고주에 연결하여 고정하였으며, 상부에 동자주를 세워 중보

를 받치고 있다. 또 중보 위에 키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도록 구성되었다. 퇴칸에는 장방형의 뿔보를 걸어 고주에 장부맞춤으로 고정하였고, 뒷기둥 상부에는 사괘맞춤으로 고정하였으며 보머리는 직절하였다.

우진각 지붕으로 구성된 처마는 4면 모두 홀처마로 처리되었고, 한식 중기와를 사용하였으며, 기와 끝은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丹青은 동채와 마찬가지로 전체 석간주색 가칠단청으로 마무리 하였다.

3.5 내삼문

內三門은 평삼문 형식으로 전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 양식으로 조영되었다. 전면에는 중앙과 양측면에 6단의 화강석 계단을 놓았으며, 기단은 자연석 막쌓기로 구성되었다. 기단의 상면은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였다.

초석은 전후 평주열과 중앙열이 서로 다른 형태가 사용되었는데, 전후 평주열에는 원주형태의 정평주초 형식이 사용되었고, 중앙열에는 덩벙주초 형식을 사용하였다. 전후 평주의 기둥은 배흘림이 적은 圓柱가 사용되었으며, 측면 중앙에는 흘림이 없는 셋기둥(간주)을 놓아 출입문을 고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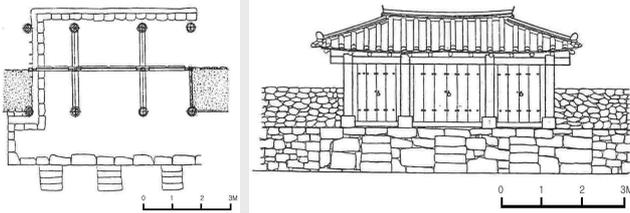


그림 6. 기초도(좌) 및 정면도(우)
(출처 : 문화재관리국, 한국의 향교건축, 1998, p.683-684)

기둥 상부를 화통까지 맞춤으로 하여 보와 도리를 고정하였다. 어칸은 협칸보다 넓게 조영되었으며, 내부에 두 짝 여단이 청판문을 달았다. 좌우 협칸에는 어칸보다 폭이 적은 두 짝 여단이 청판문을 설치하였다. 좌우 측벽은 담장을 隅柱 외측으로 쌓아올려 벽면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담장 상부는 개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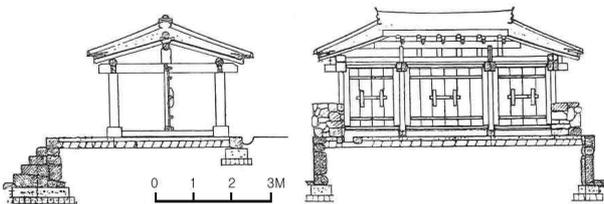


그림 7. 상세도
(출처 : 문화재관리국, 한국의 향교건축, 1998, p.684)

架構는 굴도리를 사용한 3량가이며, 어칸의 대들보는 모서리를 다듬은 방형으로서 전후 평주에 고정하였고, 상부에는 평각대공을 얹어 종도리와 장여를 받치고 있다. 栱包는 보와 도리로만 구성된 민도리 양식이다.

지붕은 우진각지붕이며, 4면 모두 부연이 없는 홀처마로 구성되었다. 기와는 한식기와가 사용되었으며, 기와 끝에는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천정은 연등천정으로 구성하였고, 丹青은 전체 석간주색의 가칠단청으로 처리하였다.

표 6. 내삼문의 조영 현황

	정면	내측
천정		
기단 및 가구		

3.6 분석결과 요약

대성향교의 대성전은 1출목 이익공양식으로 조영되었으나, 명륜당은 민도리 양식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대성전과 명륜당의 격을 달리 두었다는 점에서 상하의 위계체계와 제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단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대성전은 다소 높은 기단이 사용된 반면, 그 외 건물들은 외별대의 낮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가구의 구성에서도 제향영역의 건물과 강학영역의 건물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대성전의 가구는 보아지와 波蓮臺工 등을 사용하여 조금은 화려한 형식을 띠고 있는 반면, 명륜당에는 키대공을 주로 사용하여 소박하면서도 교육기능의 본래 목적을 고려한 조영양식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둥의 사용에 있어서도 대성전 등 제향영역의 건물은 배흘림이 있는 원주를 사용하고 있으나, 강학영역의 건물은 흘림이 약한 圓柱나 方柱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처마는 대성전 등에는 겹처마가 사용되고 있다. 또 처마의 마무리에서도 대성전 등에는 막새기와가 쓰였으나, 그 외는 아귀토로 마감하여 소박하면서도 정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건물의 외형을 완성하는 단청의 사용에 있어서도 대성전과 명륜당 등의 마감형식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성전 등에서는 모로단청으로 마감하였고 명륜당 등 강학영역의 건물들은 주로 가칠단청으로 마감되었다. (표 7 참조)

표 7. 건물별 주요 조영 특성

건물명	전경	평 면(정면×측면)	기 단	기 등	공 포	대 공	처 마	지 붕
		퇴 칸	초 석		가 구			
대성전		5칸×3칸	외별대(바른층쌓기)	원 주	1출목이익공	파련대공	겹처마	합 각
		전 퇴	정평주초		1고주 5량가			
명륜당		5칸×2칸	외별대(막돌)	원 주	민도리	키대공	홀처마	우진각
		전후좌우퇴칸	덤병주초		2고주 7량가			
동 계 (의문당)		4칸×2칸	외별대(막돌)	방 주	민도리	키대공	홀처마	우진각
		전 퇴	덤병주초		1고주5량가			
서 재		3칸×2칸	외별대(바른층쌓기)	방 주	민도리	키대공	홀처마	우진각
		전 퇴	정평주초+덤병주초		1고주 5량가			
내삼문		3칸×1칸	외별대(막돌)	원 주	민도리	평각대공	홀처마	우진각
		없 음	정평주초+덤병주초		3량가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향교건축이 갖는 세부적 특성을 찾아내어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대정향교를 중심으로 전통건축의 기본구성요소인 기단 구성방법, 가구체계, 공포양식 등의 조영 특성을 건물별로 분석하였는데, 그 분석결과가 지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대정향교는 섬이라는 특수한 지역적·기후적 조건들을 고려한 조영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대정향교의 대성전에서 사용된 갓기등과 대부분 건물에 조영된 화방벽이다. 화방벽의 경우는 타 지역에서도 사용되기는 하나 전체 건물에 사용된 예는 드물며, 특히, 갓기등은 타지역 향교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양식으로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나, 강우량이 많은 제주지역의 기후적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조선시대에 조영된 일부 건축물에서 전면은 겹처마를 두고 후면은 홀처마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이유는 후면에 습기가 많아 목조건축물의 특성상 습기에 약한 부분을 최소화하여 건물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화방벽의 전체 사용은 이러한 기법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정향교에 사용된 갓기등과 화방벽은 빗물과 습기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1출목으로 조영된 대정향교의 대성전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우주의 외곽에 갓기등을 두었는데, 길게 뻗은 추녀와 사래, 출목으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과 습기로 인한 구조재의 탈락을 자연스럽게 보강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火防壁의 사용 또한 빗물과 습기에 약한 목재를 보호하며, 노출부위를 최소화하여 구조적인 안정성을 높이려는 지혜가 깃들여 있다고 사료된다.

대정향교는 제주지역 향교 중에서 세부가공수법과 배치기법,丹青형식 등이 전국 다른 지역의 향교와 가장 유

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타 지역의 양식과 조영 기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갓기등과 화방벽의 적절한 사용 등 제주지역에 맞는 조영양식을 구현하였는데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1
2. 김숙경·김순일, 조선 후기 동래향교의 조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9권 제8호, 2003
3. 김종업, 탐라문화사, 제주 조약돌, 1986
4. 김지민, 전통건축연구, 꾸밈, 1986
5. 김지민, 향교건축의 조영규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6. 박왕희, 한국의 향교 건축, 문화재관리국, 1998
7. 서치상, 동래향교 조영에서의 지역 유향과 공장의 활동,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8권 제1호, 2006
8. 석진국, 전남지방 향교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9. 오송희, 제주지역 제주향교 운영실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0. 이범, 조선전기 유학교육과 향교의 기능, 역사교육 20('76.12) 1977
11. 제주도, 제주도지(상), 1982
12. 제주도, 제주의 문화재, 1998
13. 지태승 외 2인, 제주향교의 조영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3호, 2008
14.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건축답사수첩, 출판사 동녘, 2006
15. 한라일보, 한라연감, 한라일보, 1991

(접수: 2010.01.10, 심사완료: 2010.02.05)